



GAME CHANGERS

이슈 리포트 55호 (2019년 8월 13일)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 공동기획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 주요내용과 특징 분석

■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란?

- _ 지수 개발 배경 : GDP를 넘어 (Beyond GDP)
- _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Life in Korea Index)」 의미
- _ 조사 방법 및 지수 산출 방식

■ 2019년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

- _ 주거지로서 살기 좋은 곳의 조건, '편리한 대중교통' 1위
- _ 2019년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 서울 1위
- _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주거만족 지수, 경기 성남시 가장 높아

■ 권역별, 인구특성별 특징

- _ 수도권 : '편리한 대중교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아
- _ 충청권 : 시도별 편차 큰 가운데 대전시민 주거만족도 높아
- _ 호남권 : 쾌적한 주거환경과 환경/대기 중요도 높아
- _ 부산/경남/울산 : 자연/녹지 중요도 높고, 무난한 부합도 평가
- _ 대구/경북 : 부합도 평가점수, 대구는 높고 경북은 낮아
- _ 강원/제주 : 환경/대기 중요도 높지만 '편리성' 부족
- _ 성/연령별 : 젊은층의 '적정한 집값, 전월세' 응답 주목돼

■ 떠나고 싶은 시도, 살고 싶은 시도

- _ '현 거주지 떠나고 싶다' 1위 충남 vs '살고 싶다' 1위 서울
- _ 시도별 '서울에 살고 싶다' 열망 정도, 경기도와 세종 높아
- _ 가장 살고 싶은 도시 Top 40, 서울 강남구 1위

■ 기획 || 소셜 이슈 지수 : 8월 1주차 **Daumsoft** MINING INSIGHTS

- Ipsos Global Resources :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



입소스 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ipsos.c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ipsos_korea
 서울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빌딩 12층 □ 02_6464_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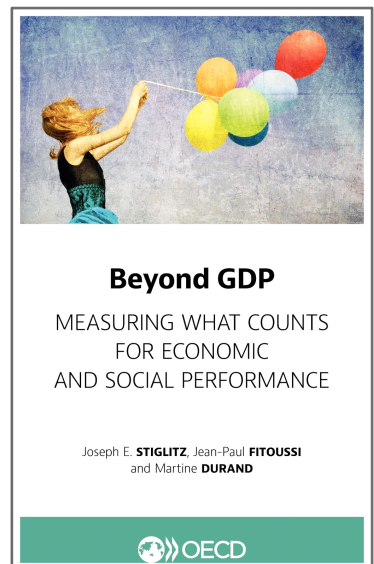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 주요내용과 특징 분석

■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란?

□ 지수 개발 배경 : GDP를 넘어 (Beyond GDP)

- 한 국가 및 사회의 발전정도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GDP, 즉 국내총생산임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임
- 국가의 경제발전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성장률 역시 GDP를 이용한 수치로, 일정기간(전년 대비, 또는 전기 대비) 동안 GDP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수치화한 것임
 - 1932년 대공황기에 등장한 GDP는 거시경제 운영 및 국가발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많은 기여를 해 왔음
- 그러나 글로벌 경제화와 사회의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GDP 중심의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이뤄짐
 - 한 국가의 발전 수준을 물질적 성장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문제제기의 핵심임
 - 실제로 GDP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환경, 건강, 불평등, 범죄, 공동체 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GDP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은 물질 편향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UN, OECD 등 국제기구는 GDP를 보완할 새로운 사회발전 지표를 개발, 발표하고 있음
-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이 흐름의 대표주자로 HDI는 사회발전 전략의 초점을 소득 중심(GDP)에서 인간 중심(삶의 질)으로 이동시킴
 - UNDP의 HDI는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3가지 핵심요소로 소득, 교육, 건강을 꼽고 각 영역별로 사회발전 수준을 측정하고 있음
- OECD 역시 이러한 흐름을 적극 반영, 물질적 요인과 함께 비물질적 요인까지 포함한 11개 영역 24개 지표(BLI : Better Life Index)를 개발해 종합적인 사회발전 수준을 측정, 평가하고 있음

※ 'Beyond GDP'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입소스 리포트 51호 『한국사회 '삶의 질' 현황과 시사점』(2019년 7월 8일자) 참고



○ 다음은 국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주요 국제기구의 사회발전 지표들임

	HDI Human Development Index	IHDI Inequality-adjusted Human Development Index	GII Gender Inequality Index	WP World Happiness Index	SPI Social Progress Index	BLI Better Life Index
소관 기관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			UN 산하 SDSN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미국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 (Social Progress Imperative)	OECD (경제개발협력 기구)
목적	국민소득 중심의 사회발전에서 인간에 초점을 둔 사회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개발			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 (3.20)에 발표. 각국의 사회발전과 공공정책 목표를 국민행복에 두도록 유도	사회적 발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정부정책, 기업행위, 시민사회 활동에 기여	현재의 웰빙 수준을 측정. 포괄적인 사회발전 도모
사용 지표	기대수명지수. 교육지수. GNI지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 HDI 지수	성별로 다음 지수 측정 : 건강.역능성. 노동시장	1인당 국내총생산.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패 정도 등 측정	기본욕구, 웰빙의 기반 및 기회 관련 3개 차원	주거.소득.직업. 공동체.교육.환경. 시민참여.건강. 삶의만족.안전. 일과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 24개 지표

-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GDP 한계를 보완한 '삶의 질' 지표를 개발, 정책적 판단 근거로 활용 중임
 - 영국의 National Well-being, 캐나다의 Index of Well-being, 네덜란드의 Life Situation Index, 뉴질랜드의 Quality of Life Survey 등이 대표적임
 - 우리나라도 국민 삶의 질 지표(Quality of Life)를 개발, 운영 중임
-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GDP 중심의 국가·사회발전 전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 정치권 및 언론에서는 언제나 경제성장률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최우선시 되고 있음
 - 또한 한국사회의 취약한 복지제도에 초점을 맞춰 복지가 '삶의 질'의 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복지만 강조하는 경향도 동시에 존재함
 - 이러한 결과로 OECD의 BLI에서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Beyond GDP'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에 근거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심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Life in Korea Index)」 의미

◎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주목한 최초의 대규모 조사

-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Life in Korea Index)」는 'Beyond GDP' 흐름에 조응한 조사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주목한 최초의 대규모 조사임(전국 1만명 조사)
- 주체면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거 공간'에 초점을 맞춰 일상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을 측정함

◎ UN, OECD 등에서 발표하는 종합지수 방식 채택

- 통계자료는 크게 '지표 나열법'과 '종합지수'로 대별되는데, 지표 나열법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 정당지지도 등 처럼 조사 수치를 그대로 제시하는 방법임
- 이에 비해 종합지수는 조사된 지표들간의 연관성을 추출해 단일한 지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UN, OECD 등 국제기구가 주로 채택하고 있음(UN 남녀격차지수, UN 행복지수, OECD BLI 등)
-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는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지표를 조사하고, 이를 단일 지수로 변환함

◎ 광역시도간 주거만족 현황 비교로 지방정부 정책판단 근거로 활용 가능

- 단일 지수 추출에 따라 17개 광역 시도간 주거만족 현황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음
-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준을 다른 시도와 비교·진단하는데 유용하고, 정책수립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해당 광역 시도의 공공 빅데이터, 주민 의식조사 등과 손쉽게 결합·분석이 가능해 세심한 정책수립이 가능함

□ 조사 방법 및 지수 산출 방식

◎ 입소스 코리아, 피엠아이 공동 기획·조사



- 조사설계와 분석은 입소스 코리아가 맡았으며, 기본 모델은 입소스 호주에서 시행한 'Life in Australia Index'를 활용함
- 조사실행은 국내 최대 온라인패널 조사기관인 피엠아이(PMI)가 담당함

◎ 조사대상 및 기간

- 만 15~64세의 전국 1만명을 대상으로(시도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할당 추출)
- 7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조사로 이뤄짐

◎ 지수 산출 방식

- 호주에서 실시한 모델을 참조, 주거와 관련된 16개 지표(대중교통, 주거안전, 주택 가격, 주민복지 등)를 선정함
- 16개 지표 중 주거지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지표를 5개 고르도록 해 지표의 우선 순위를 파악한 후, 지표별 만족도를 반영해 최종 지수를 산출함

[주거관련 16개 지표]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쇼핑/외식	쇼핑,외식 등 편의시설이 다양하다
교통흐름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다	문화/레저	문화,예술,스포츠,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주거쾌적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의료시설	만족스러운 의료시설이 있다
환경/대기	환경오염이 적고 공기가 깨끗하다	복지시설	주민편의,복지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자연/녹지	산,강,공원 등 자연과 녹지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보육환경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주거안전	안심이 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교육환경	만족스러운 교육시설들이 있다
거주이웃	주변에 괜찮은 이웃들이 있다	일자리	좋은 일자리 기회들이 있다
주택가격	집값, 전월세 등이 적정하다	지역경제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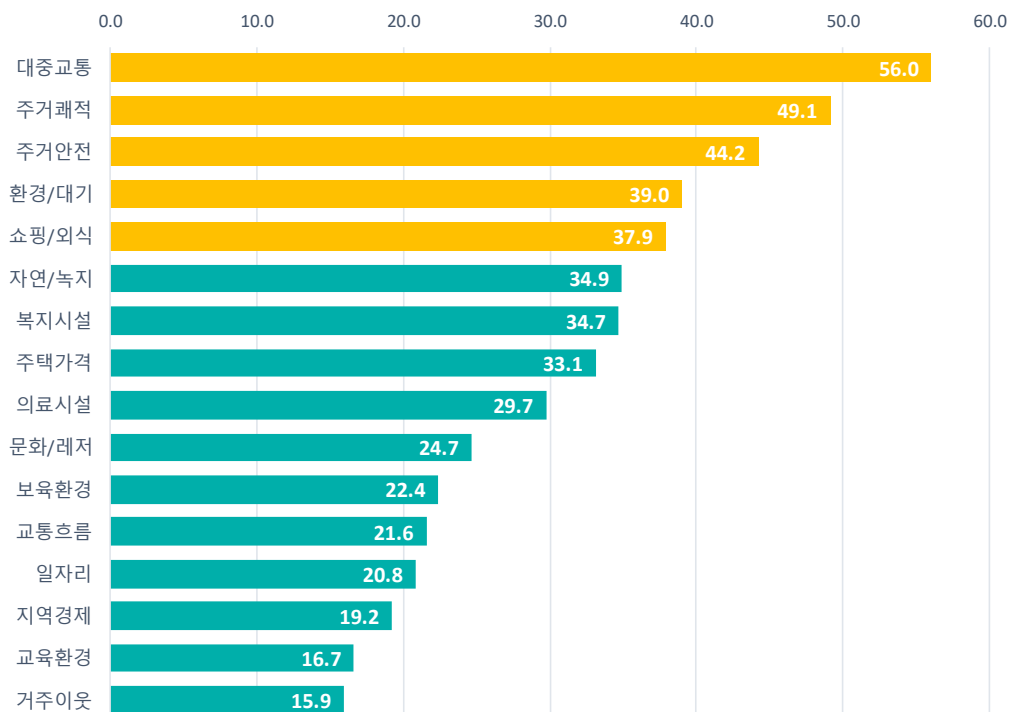
2019년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

주거지로서 살기 좋은 곳의 조건, '편리한 대중교통' 1위

-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거지로서 살기 좋은 곳이 갖춰야 할 최고의 조건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을 꼽음(56.0%)
 - 주거지를 결정할 때 직장 출퇴근 문제와 이동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 다음으로 '주거환경의 쾌적함'(49.1%)과 '주거 안전(44.2%)'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 '환경/대기'가 네번째(39.0%) 중요조건에 올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쇼핑/외식' 등 편의시설은 다섯 번째(37.9%) 중요한 조건에 꼽힘
- '복지시설'은 근래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주거안전 등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 전국적으로는 복지시설 관련 투자보다 대중교통과 안전 등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주목되는 지점이지만, 광역시도별 편차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한편 일자리, 지역경제와 같은 경제요인은 후순위로 밀림
 -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취업을 한 이후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거주 이웃'은 가장 후순위 조건으로,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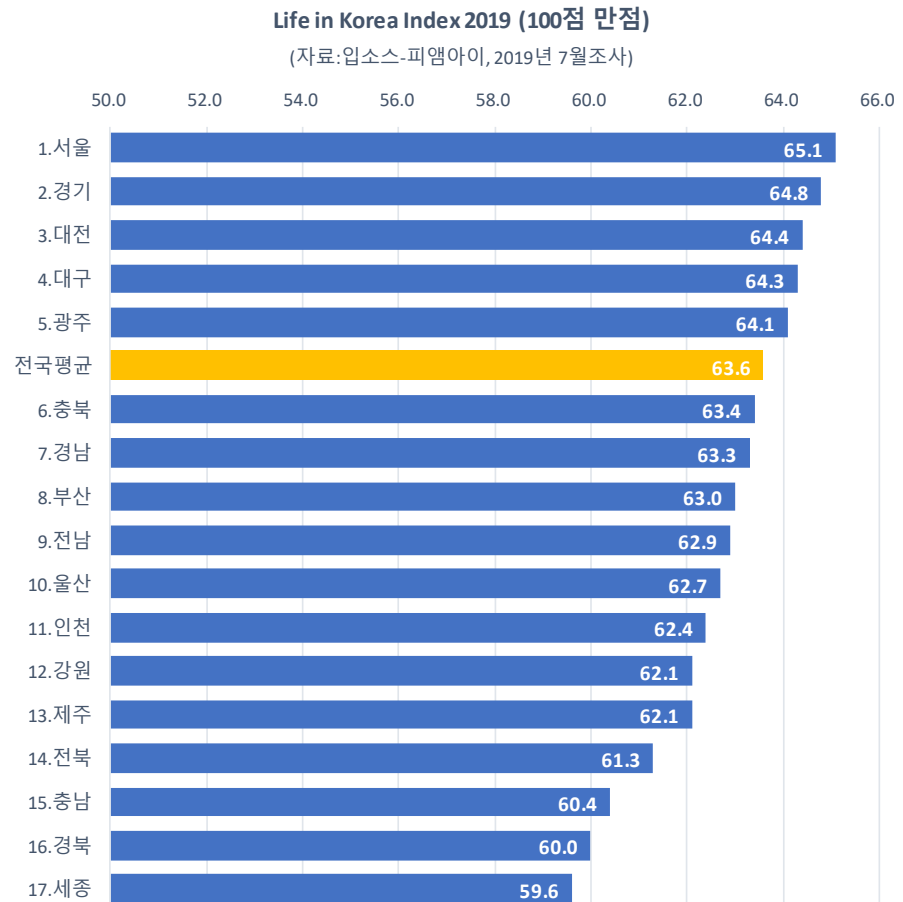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살기좋은 주거지 요건

(자료:입소스-피엠아이, 2019년 7월조사 / 단위:%)



□ 2019년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 서울 1위

- 2019년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Life in Korea Index 2019)는 100점 만점에 63.6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16개 지표별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임
 - 전국 평균 점수(63.6점)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광역시도는 서울 등 5개 시도이고,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12개 시도임
- 광역시도별 1위는 서울로 65.1점을 기록함
 - 2위는 0.3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경기도(64.8점)가 차지했으며, 3위 대전(64.4점), 4위 대구(64.3점), 5위 광주(64.1점) 순이었음
-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8위(63.0점)를 기록한 것이 주목되고, 인천시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11위(62.4점)로 낮은 순위를 기록함
 - 세종시는 가장 낮은 점수(59.6점)를 기록하며 17위에 위치했고, 경북(60.0점) 16위, 충남(60.4점) 15위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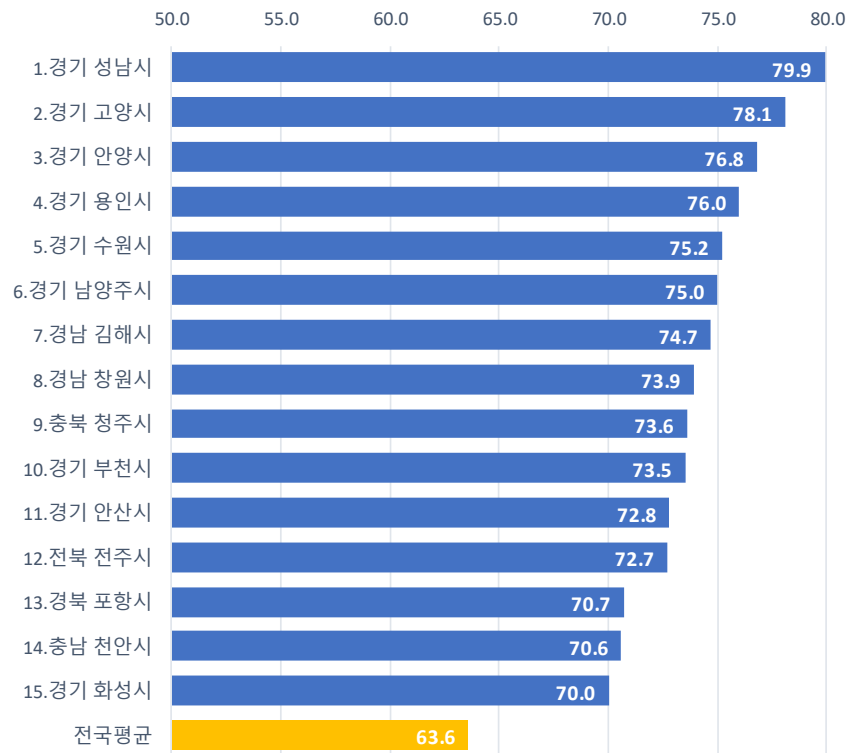


□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주거만족 지수, 경기 성남시 가장 높아

-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15개 시)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만족 지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위는 79.9점을 기록한 성남시가 차지했으며, 2위부터 6위까지 모두 경기도 도시들이 차지함
 - 2위 고양시(78.1점), 3위 안양시(76.8점), 4위 용인시(76.0점), 5위 수원시(75.2점), 6위 남양주시(75.0점) 등의 순임
- 15개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시는 경기 화성시로 70.0점을 기록함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Life in Korea Index 2019

(자료:입소스-피엠아이,2019년 7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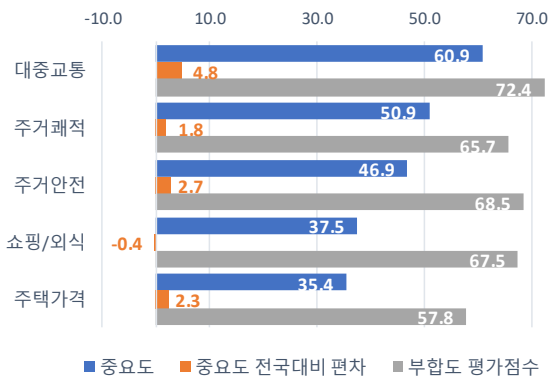


■ 권역별, 인구특성별 특징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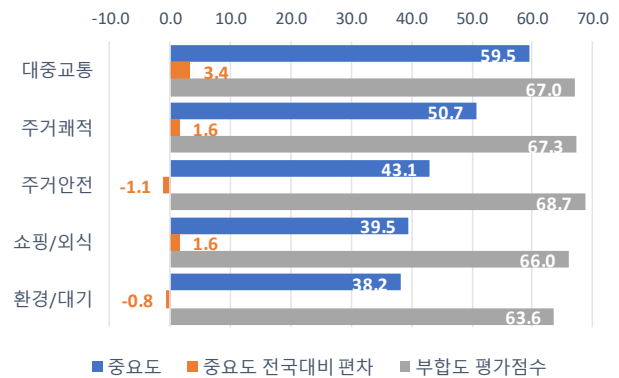
□ 수도권 : ‘편리한 대중교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아

- 서울시민은 전국 평균에 비해 대중교통, 주거쾌적, 주거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또한 전국적으로 Top 5에 꼽힌 환경/대기 보다 주택가격을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 주택가격에 대한 부합도 평가 점수도 상대적으로 낮아 서울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전, 월세 포함)이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민은 전국평균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을 가장 요소로 중요하게 꼽음
 - 경기도민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 하거나 서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인천도 전국 Top 5와 동일한 요소가 꼽힌 가운데, 대중교통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인천시민 역시 인천 이외 지역으로의 출퇴근 및 인천 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부합도 평가 점수에서 환경/대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은 악화된 대기질 영향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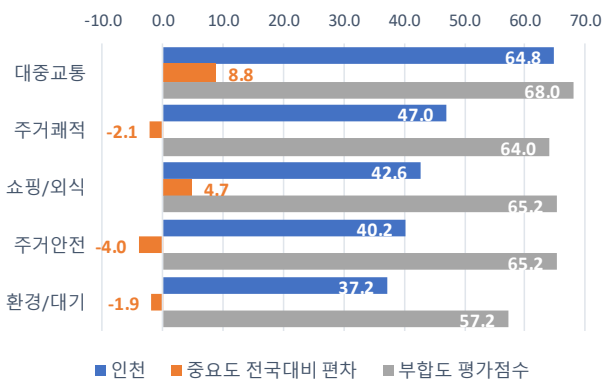
1위.서울 주거요건 중요도 Top5, 부합도 점수(단위:%,점)



2위.경기 주거요건 중요도 Top5, 부합도 점수(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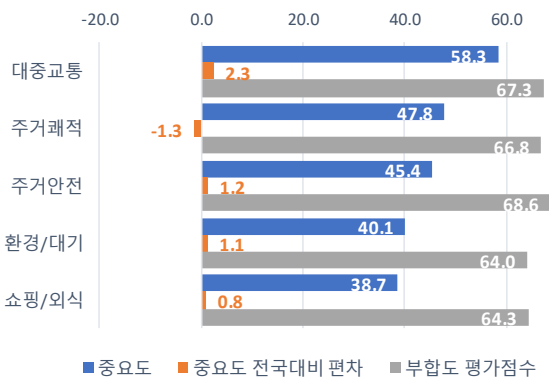
11위.인천 주거요건 중요도 Top5, 부합도 점수(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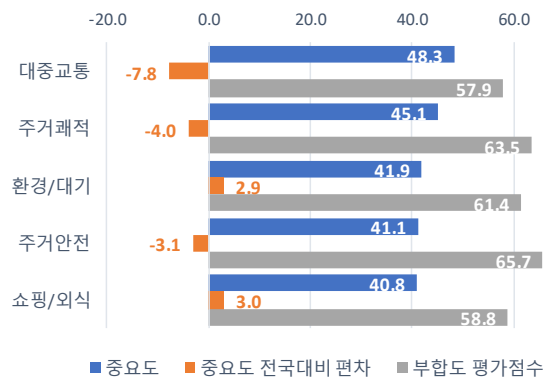
□ 충청권 : 시도별 편차 큰 가운데 대전시민 주거만족도 높아

- 전국적으로 주거만족 지수 3위를 기록한 대전 역시 전국평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부합도 평가점수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15위로 하위권을 위치한 충남은 환경/대기와 쇼핑/외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쇼핑/외식에 대한 부합도 평가점수 역시 낮은 수준을 보여 충남도민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중교통에 대한 평가점수도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충북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환경/대기도 중시 여김
 - 전반적으로 부합도 평가 점수가 양호한 수준을 보이면서 전체 6위를 기록함
- 최하위를 기록한 세종시는 주거쾌적, 쇼핑/외식, 복지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쇼핑/외식 부합도 평가 점수와 대중교통 부합도 평가 점수도 낮으면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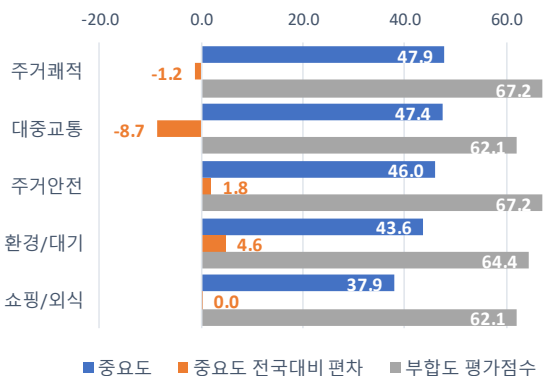
3위.대전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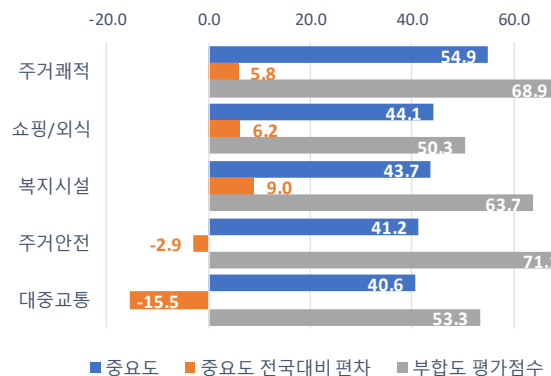
15위.충남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6위.충북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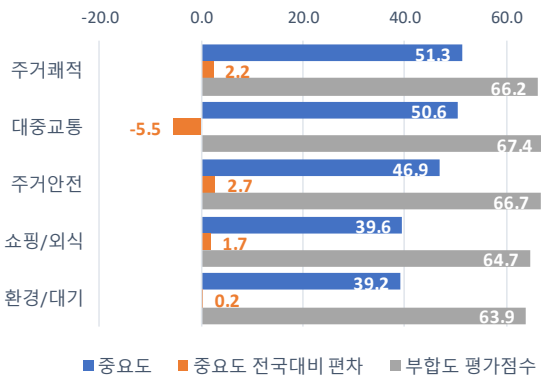
17위.세종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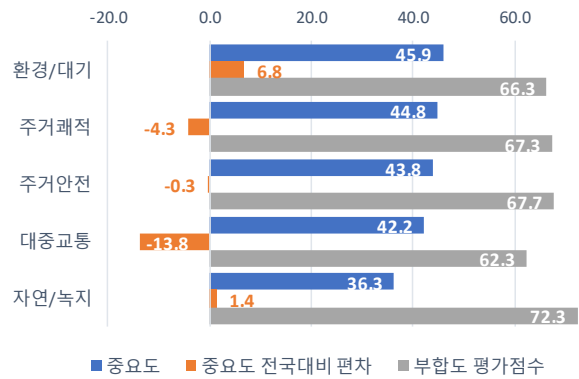
□ 호남권 : 쾌적한 주거환경과 환경/대기 중요도 높아

- 광주시민은 전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주거쾌적, 주거안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부합도 평가 점수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면서 전국 5위를 기록함
- 전남도민은 환경/대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연/녹지가 중요도 Top 5에 오르는 등 청정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이 부각됨
 - 자연/녹지에 대한 부합도 평가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쇼핑/외식과 같은 편의시설 보다 의료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는 전국에서 고령층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보임
- 전북도민은 전국 Top 5에 꼽힌 쇼핑/외식 등 편의시설 보다 주민편의 복지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 부합도 평가점수에서도 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전북도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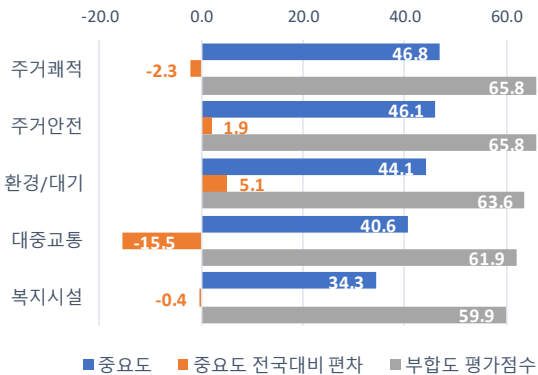
5위.광주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9위.전남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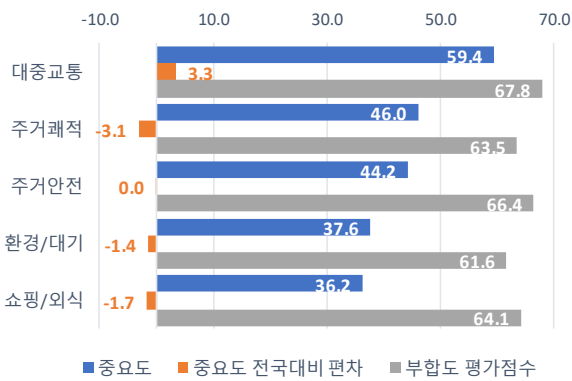
14위.전북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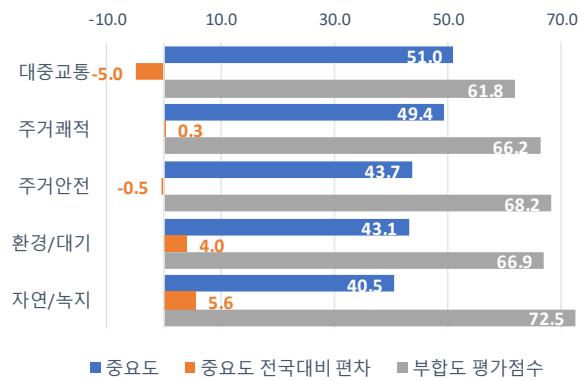
□ 부산/경남/울산 : 자연/녹지 중요도 높고, 무난한 부합도 평가

- 부산시민이 생각하는 살기좋은 주거지 요건은 전국평균과 그 순서가 일치하고 있음
 - 대중교통에 대한 중요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주거쾌적에 대한 중요도는 낮음
 - 부합도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16개 요소 중 특출나게 높은 점수를 얻은 요소도 없고, 특별히 낮은 점수를 얻은 요소도 없는 등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함
 - 이러한 무난함이 순위 면에서도 중간수준인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
- 경남도민은 부산시민과 중요하다고 선택한 요소가 비슷한 가운데 중요도 Top 5에 쇼핑/외식 대신 자연/녹지가 오른 점이 다름
 - 환경/대기와 자연/녹지에 대한 중요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 경남도민들은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연/녹지에 대한 부합도 평가점수가 높은 수준을 보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울산시민도 경남도민과 유사하게 자연/녹지와 환경/대기가 중요도 Top 5에 오름
 - 그러나 환경/대기에 대한 부합도 평가 점수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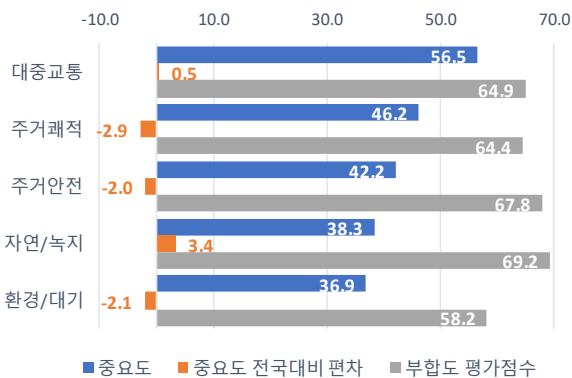
8위.부산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7위.경남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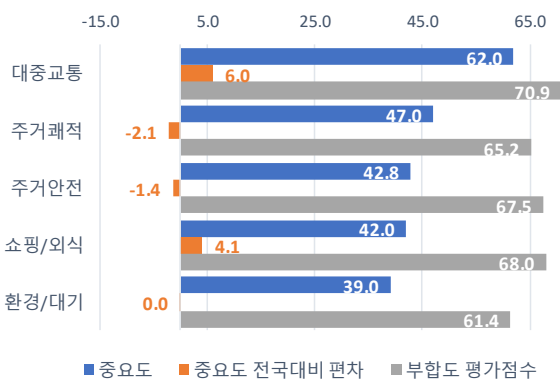
10위.울산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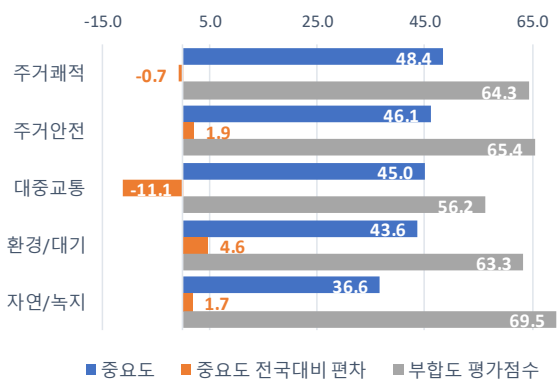
□ 대구/경북 : 부합도 평가점수, 대구는 높고 경북은 낮아

- 대구시민이 살기좋은 주거지로 중요하게 꼽은 Top 5는 전국 평균과 내용적으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
 - 대중교통과 쇼핑/외식에 대한 중요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주거쾌적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나타남
 - 대중교통, 쇼핑/외식 등 중요도가 높은 요건에 대한 부합도 평가점수가 높은 점을 볼 때 비교적 주민의식에 기반한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북도민은 전국 중요도 Top 5에 속한 쇼핑/외식 대신에 자연/녹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꼽음
 - 부합도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복지시설, 쇼핑/외식, 복지시설 등에 대한 부합도 평가점수도 낮아 주거만족 지수가 전국 16위에 그친 것으로 분석됨

4위.대구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16위.경북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입소스 퍼블릭 본부 : 3가지 포커스

01	정밀한 조사	글로벌 표준, 최신 기법을 적용한 정확한 여론, 현상 측정
02	입체적 분석	글로벌 비교, 국내외 통계를 활용한 깊이 있는 분석
03	전략 컨설팅	정책 방향,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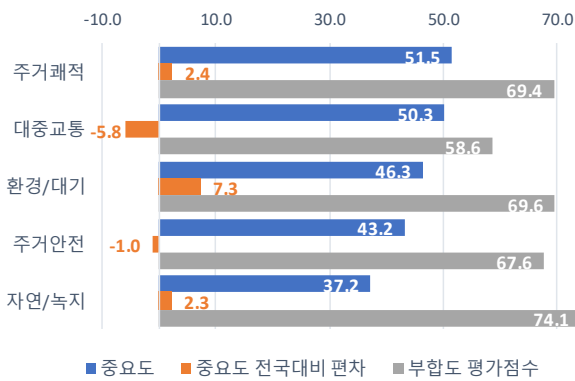
입소스 퍼블릭 본부 : 주요 서비스 라인

글로벌 여론조사	세계 30여개 국가 월간 온라인 공동조사 참여	정책 여론과 효과분석, 시사점 도출	정책진단
여론과 사회	입체적 여론 분석, 공공부문 현상과 통계 작성	정치, 선거 민심 측정과 Campaign 전략 수립	정치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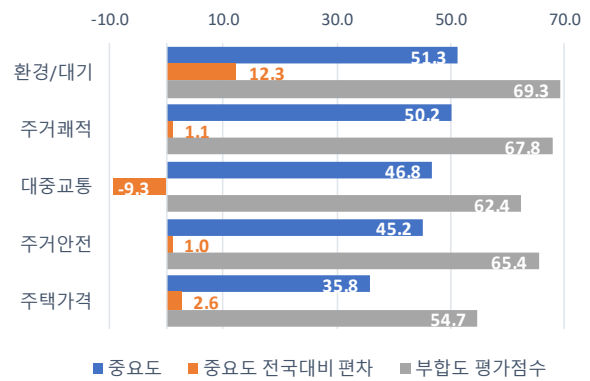
□ 강원/제주 : 환경/대기 중요도 높지만 ‘편리성’ 부족

- 강원도민은 살기좋은 주거요건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대중교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환경/대기, 자연/녹지에 대한 중요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아 자연친화적인 요건을 중시함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대중교통에 대한 부합도 평가 점수가 낮고, 쇼핑/외식에 대한 평가 점수도 낮게 나타나는 등 편리성 부족으로 낮은 주거만족 지수를 기록함
- 제주도민은 ‘깨끗한 공기, 적은 환경오염’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환경/대기 중요도는 17개 광역 시도중 가장 높음
 - 그러나 서울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Top 5에 오르고, 부합도 평가점수 역시 낮은 것을 볼 때 주택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의료시설, 문화/레저시설에 대한 낮은 부합도 평가점수도 제주도민의 주거만족 지수를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됨

12위.강원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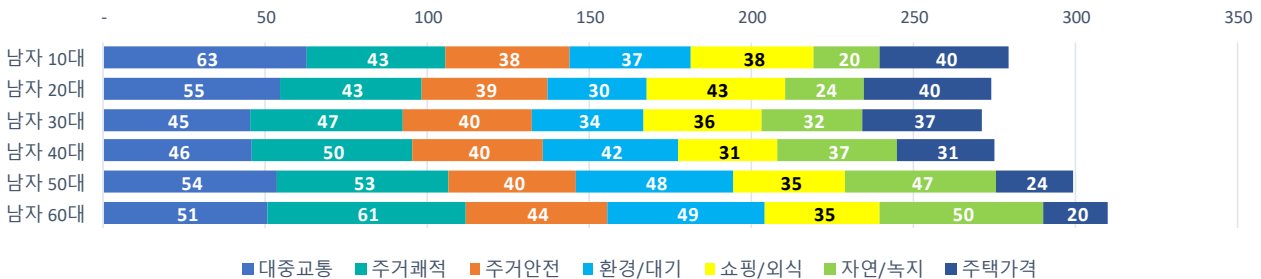
13위.제주 주거요건 중요도, 부합도 점수(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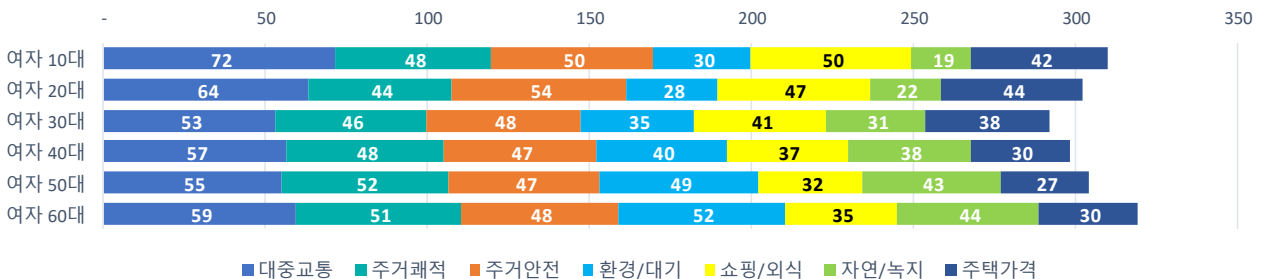
□ 성/연령별 : 젊은층의 ‘적정한 집값, 전월세’ 주목돼

- 성/연령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요건이 다르게 나타남
 -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립시 이러한 성/연령별 차이를 인식하고, 섬세한 조사를 통해 계층별 맞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나이가 어릴수록 ‘편리한 대중교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성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짐
 - 상대적으로 자가 운전하는 여성비중이 낮은 것 때문으로 보임
 - 또한 젊은 여성일수록 ‘주거안전’과 ‘쇼핑/외식 등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함
- 나이가 많을 수록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연/녹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남자 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해짐
- 한편, 젊은 남녀(10대~30대) 모두 ‘적정한 집값, 전월세’가 주거요건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함
 - 특히 10대와 20대에서 이러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인데, 결혼적령기를 앞둔 젊은층의 주된 고민인 것으로 보임

남자 연령별 주거요건 중요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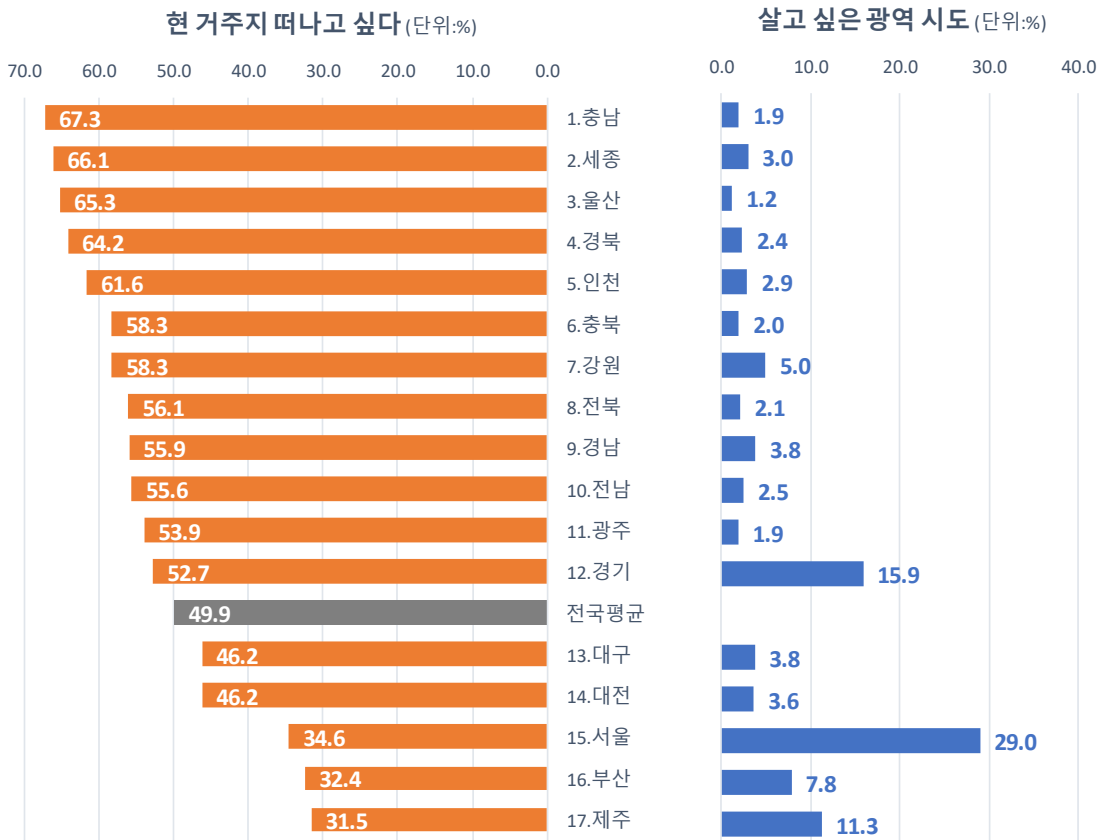
여자 연령별 주거요건 중요도 (단위:%)



■ 떠나고 싶은 시도, 살고 싶은 시도

□ ‘현 거주지 떠나고 싶다’ 1위 충남 vs ‘살고 싶다’ 1위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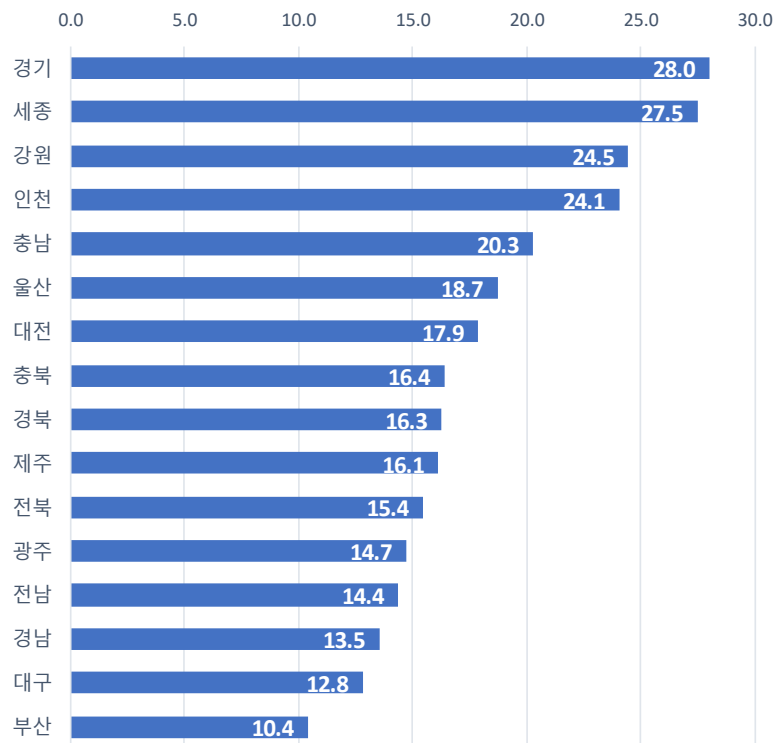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은 직장이나 학교에 구애받지 않을 경우 현 거주지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의 출퇴근이나 통학에 구애받지 않을 경우 가장 살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에 현재 거주하는 광역시도 이외 시도를 선택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49.9%에 달함
 - 충남도민이 가장 떠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고(67.3%), 세종(66.1%), 울산(65.3%) 순이었음
 - 앞서 조사한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Life in Korea Index)에서 하위권에 속한 시도에서 떠나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제주가 3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제주의 경우 주거만족 지수가 전국 13위를 기록했지만 떠나고 싶다는 응답이 높지 않은 점이 특이함
- 살고 싶은 광역 시도에는 서울이 29%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기도(15.9%)와 제주도(11.3%)가 꼽힘



□ 시도별 '서울에 살고 싶다' 열망 정도, 경기도와 세종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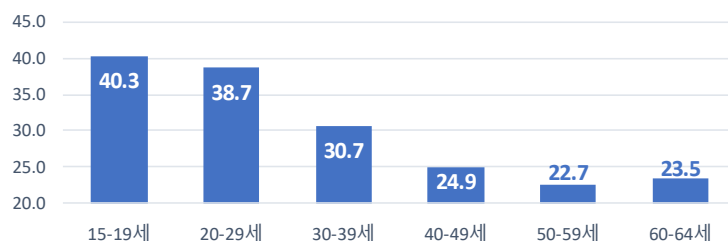
- 시도별로 서울에 살고 싶다는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8.0%로 가장 높았음(서울 제외)
 -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에 살고 싶은 욕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경기도 다음으로는 세종시(27.5%), 강원도(24.5%), 인천시(24.1%)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서울에 살고 싶다는 열망 정도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10.4%를 기록함
 - 다음으로 대구(12.8%), 경남(13.5%), 전남(14.4%) 순임

시도별 '서울에 살고 싶다' 비중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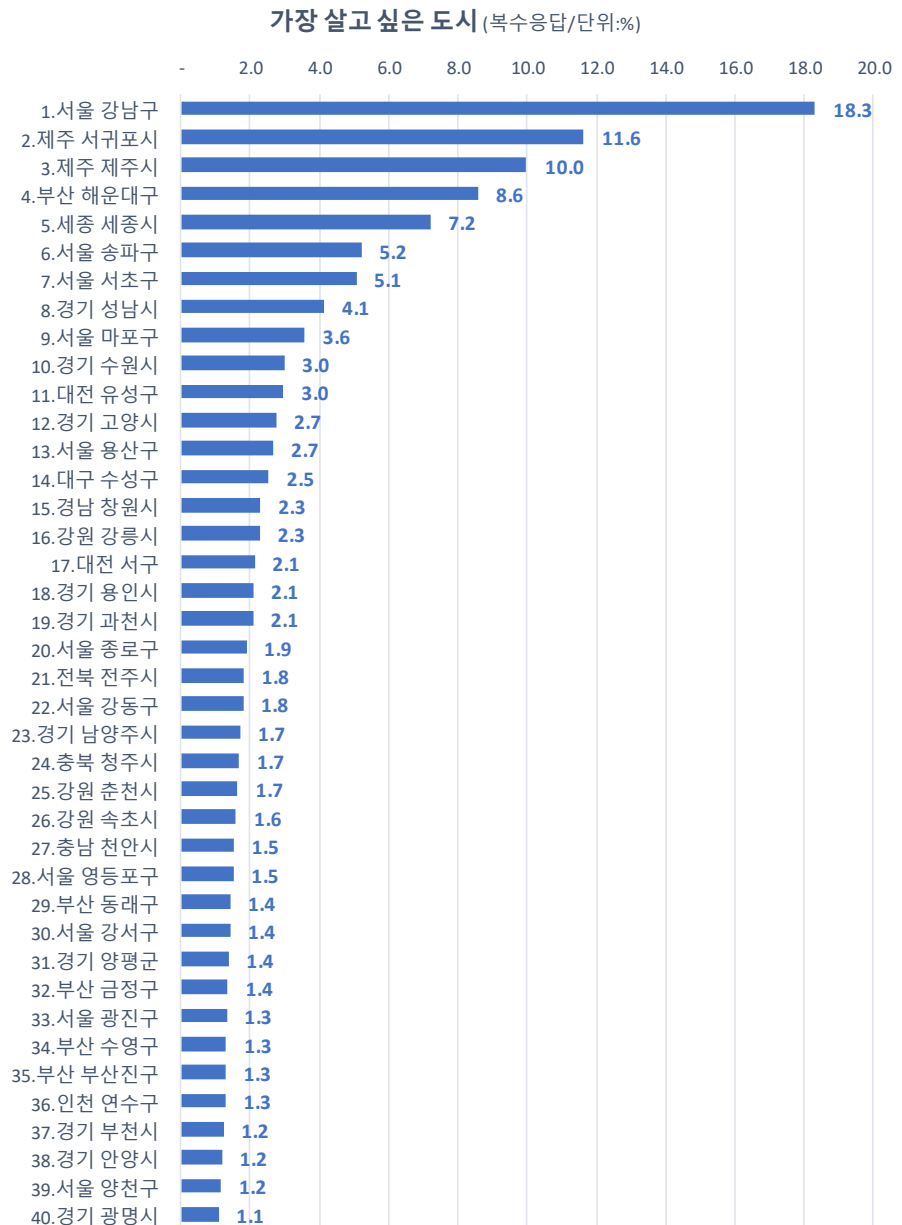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 수록 서울에 살고 싶다는 열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에 살고 싶다' 연령별 비중 (단위:%)



□ 가장 살고 싶은 도시 Top 40, 서울 강남구 1위

- 현 거주지를 떠나 살고 싶은 곳을 기초 시군구 단위로 질문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살고 싶은 동네는 서울 강남구로 나타남(복수 응답)
 - 18.3%의 국민이 서울 강남구를 꼽았으며,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11.6%), 제주 제주시(10.0%), 부산 해운대구(8.6%), 세종시(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살고 싶은 동네 2위, 3위에 제주도가 꼽혔는데, 이는 일종의 '로망' 으로 보임
 - 실제로 살기에 불편한 면이 많은데 이를 잘 모르는 외지인들이 꿈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 열풍이 불다가 지금은 잠잠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임



※ 자료 요청 및 추가 분석 등 관련 문의

- 입소스-피엠아이가 공동으로 기획·조사한 「2019년 한국인 주거만족 지수(Life in Korea Index 2019)」는 주거와 관련된 최초의 대규모 조사임
- 15세 이상 전국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에 따라 각 시도별 추가 분석이 가능함(샘플수가 작은 세종시 제외)
 - 성별, 연령별, 직업별, 주관적 이념성향별 등 본 보고서에 준한 계층 분석
- 본 조사의 17개 시도별 샘플 수는 아래와 같음

	사례수	구성비
전체	10,000	100.0
서울	1,500	15.0
부산	500	5.0
대구	500	5.0
인천	500	5.0
광주	500	5.0
대전	567	5.7
울산	500	5.0
세종	196	2.0
경기	1,500	15.0
강원	400	4.0
충북	518	5.2
충남	519	5.2
전북	500	5.0
전남	500	5.0
경북	500	5.0
경남	500	5.0
제주	3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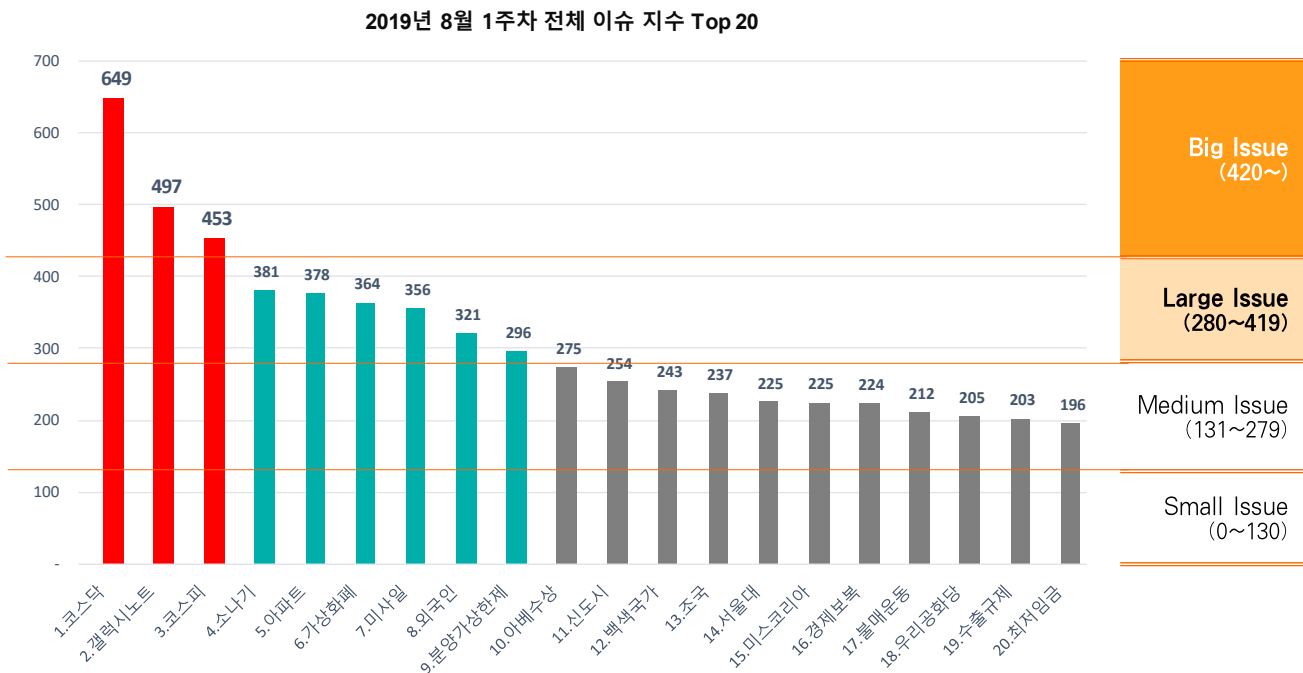
「한국인 거주만족 지수」 자료 요청 및 추가 분석 등 문의
 입소스 퍼블릭_이상일 본부장 sangil.lee@ipsos.com 02-6464-5336

기획 || 소셜 이슈 지수 : 2019년 8월 1주차

Daumsoft
MINING INSIGHTS

본 기획 코너는 다음소프트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고, 모든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은 다음소프트가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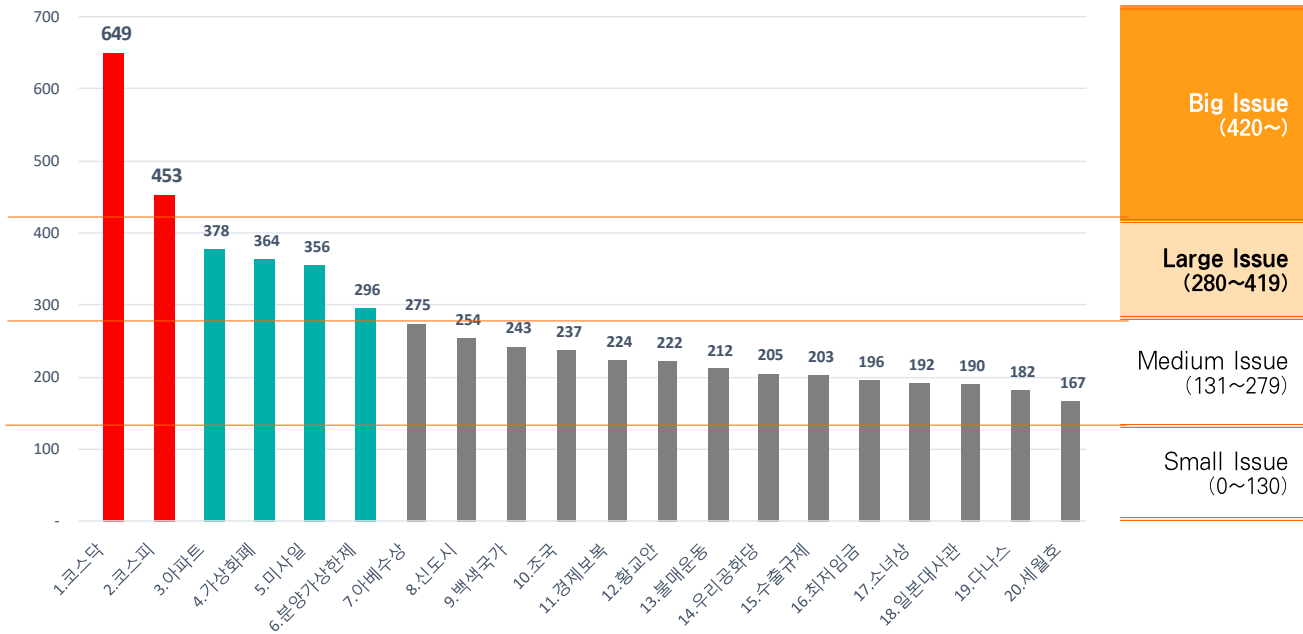
□ 전체 이슈 지수 Top 20



- 8월 1주차 전체 Big Issue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결정 이후 혼란에 빠졌던 코스닥과 코스피가 1위, 3위를 차지했으며 연관 키워드인 외국인도 Large Issue로 관심을 받음
 - 특히 사이드 카가 발동된 코스닥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음
 -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노트에 대한 관심도 높은 수준이었음
- Large Issue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아파트 가격 상승 및 이와 연관된 분양가 상한제 등이 오름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이슈는 단일 이슈로의 관심도는 낮지만 여러가지 이슈로 분화되었고, 관심도 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아베수상, 백색국가, 경제보복, 불매운동, 수출규제 등 다양한 키워드가 Medium Issue에 올라 있음

□ 정치·사회부문 이슈 Top 20

2019년 8월 1주차 정치·사회부문 이슈 지수 To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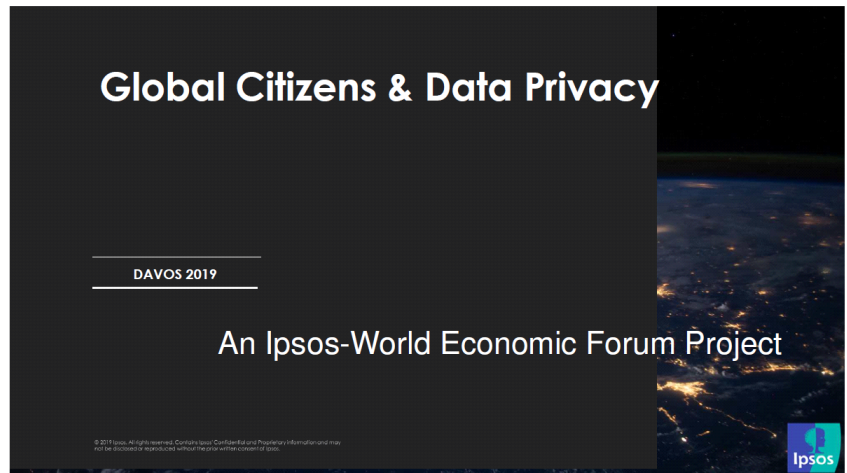


- 정치·사회부문 Big Issue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었음
 - 지난 8월 5일 월요일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미중 무역전쟁 격화가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동양상을 보임
 - 블랙 먼데이로 불린 8월 5일, 코스닥 낙폭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1,211원에 거래되는 등 2년 7개월만에 1,200원을 넘음
 - 당분간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Large Issue로는 아파트와 분양가 상한제가 주목됨
 -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Medium Issue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키워드가 대거 등장함
 - 수출규제 단일 키워드로는 지수가 크지 않지만 아베수상, 백색국가, 경제보복, 불매운동, 수출규제, 소녀상, 일본대사관 등 다양한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후보자도 많은 관심속에 Medium Issue에 오름
 -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 위상이 커진 만큼 청문회 시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Ipsos Global Resources :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

_ 이번 주에 소개해 드릴 Global Resource는 기업 및 정부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_ 세계경제포럼(WEF)과 제휴해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입소스 글로벌 어드바이저(Ipsos Global Advisor)의 조사 결과로, 20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18~64세 성인과 24개국 모두에서 16~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총 18,813건의 인터뷰가 입소스 온라인 패널 시스템을 통해 실시되었습니다.



_ 미국 Ipsos Public Affairs 담당자들은 “대다수의 사람들(67%)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명확하다면 회사와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고 말했고, “기관들이 개인정보로 무엇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기밀을 보장하거나, 깨끗한 보안 기록을 보유하거나,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_ 즉, 조사 결과 사람들은 개인정보 공유의 이점 보다는 프라이버시와 보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_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분의 1(36%)이 조금 넘는 응답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조직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3명 중 1명(35%)만이 개인 데이터 회사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32%)를 잘 알고 있었다.
-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62%)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 더해 절반 이상(54%)은 정보 이용에 대해 보수를 받거나 보상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 일본, 호주, 벨기에, 캐나다 및 독일 등 개인 정보가 더 많이 규제되는 국가에서는 기업이 개인 정보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낮고(20%), 중국·인도·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보다 더 인식이 낮았다(45% 이상)

- 개인정보 공유가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3분의 1(35%)에 불과하고,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적었다(28%)

- 5명 중 1명(23%)만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기업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_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

[[Global Citizens & Data Privacy](#)]